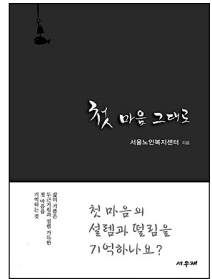


# 성인(聖人)과 옛 현인(賢人)에게 길을 묻다



**첫 마음 그대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음  
서우재 펴냄  
1만 1500원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 효도함만 못한 것이니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중에서

“만약 모든 중생이 그 부모를 충심으로 존중하며 예배하여 섬기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하여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무량한 복을 낳으며, 온갖 지혜 있는 이들이 다 칭찬하여 명예가 널리 들리며, 여러 사람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죽은 뒤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보사경〉중에서

〈첫 마음 그대로〉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인 계율, 선정, 지혜의 가르침과 자비희사의 사무량심(四無量心), 보시(布施)의 정신과 공덕, 효(孝)의 의미와 감동적인 효행, 친구 사귀기, 가족 관계 등에 관한 경전

말씀을 가려 뽑아 실었다. 또한 선(禪)의 정신과 불교의 근본정신에 대한 경전과 논(論)의 구성 및 옛 스님들의 말씀도 선별하여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익제 이재현의 〈익재집(益齋集)〉, 화담 서경덕의 〈화담집(花潭集)〉, 남명 조식의 〈남명집(南冥集)〉, 성호 이익의 〈성호전집(星湖全集)〉,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 아정 이덕무의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환재 박규수의 〈환재집〉,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白凡逸志)〉 등 옛 현인들의 문집 8종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 실었다. 그리고 5개의 장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경전 구절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함께 실어 우리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한다.

돌이켜 보면 삶의 기쁨은 두근거림과 설렘 가득한 첫 마음의 순수와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사랑의 달콤한 설렘, 갓난아기의 해맑은 미소가 주는 떨림, 이웃을 돕겠다는 봉사와 나눔의 순수한 결심 등 삶의 첫 마음은 언제나 소중하고 아름답다.

복잡다단한 일상에 묻혀 잊히고 빛이 바래기 마련이지만, 처음 먹은 마음의 순수와

고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퇴색할수록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 순수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부터 처음 결심한 마음의 소중함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강조되고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은 물론이고 옛 선비들의 문집에서도 지

## 보시 효행 우정 등에 관한 경구 선별

40종 경전, 22종 논·초·어록 등서

## 복지 현장서 일어난 에피소드도 실어

## 나눔과 봉사의 아름다움 핵심 가르침

난 잘못을 반성하고 첫 마음을 되살려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이 가득하다. 『첫 마음 그대로』는 그러한 가르침과 말씀을 가려 뽑아 오늘의 우리가 첫 마음의 순수와 고귀함을 잃지 않도록 도우려고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글들은 모두 40종의 경전과 22종의 논, 초, 어록 그리고 9종의 문집서 가려 뽑았으며, 독자들이 자주 접하

지 못하는 구절들로 선별했다. 태어남과 죽음, 늙음과 병들, 가족의 의미와 효도, 참된 보시와 자비의 의미, 노년의 수행, 삶의 방향 등에 관한 식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각 구절마다 간단한 해설을 더하여 읽는 이의 이해와 사유를 도왔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에피소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경전 구절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구 뿐만 아니라 책 속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민주 영양사의 글도 유일하게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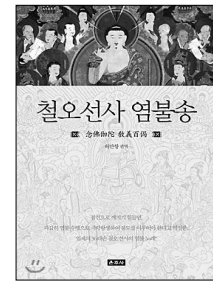
현장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적어 더욱더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와 닿는다. “자기 부모도 아닌 이들의 식사 수발을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을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을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보살’의 뜻이 저절로 와 닿는다. ‘몸과 말과 뜻으로’ 실천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 센터의 봉사자들이야말로 보살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염불공덕의 수승함 계승으로 읊어

## 철오선사 염불송

허만항 편역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한국불교의 경우 역사적으로 염불과 참선이 함께 발전해 오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화두 참선을 중시하고 염불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마치 불교 수행이 상근기 들만 닦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좁혀진 감이 없잖아 있다. 이는 불교의 대중화에도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을 찾는 이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을 던져준다.

이 책은 중국불교서 정토종의 교리체계 확립에 큰 기여를 한 철오선사가 염불의 뛰어난 데 대해 계승으로 읊은 〈염불가타〉를, 이에 대한 해설들과 함께 소개했다. 중국 청나라 때 스님인 철오 선사는 임제종의 제36대 법통을 이은 선사이자 정토종의 제10대 조사로 추앙된 인물로서, 염불과 참선을 동시에 수행하여 당시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대선지식이다. 화엄, 법화, 능엄, 천태, 유식 등 다방면의 불교교학에 달통해 법문 잘하기로 당대 제 1인자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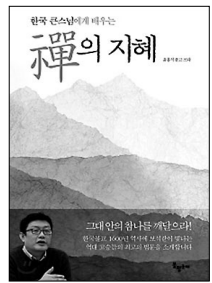
뿐 아니라, 치열한 수행으로 화두를 타파해 스승으로부터 임제종 전법조사로 인가받던 그의 정토사상에는 일반 염불과 달리 선의 지혜가 깊이 깃들여 있다. 다시 말해 선사가 주장한 염불은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근거로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의 실재를 동시에 긍정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이사원융(理事圓融)의 정토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정토사상은 다양한 교학과 수행법을 융합하여 정토로 귀결시킴으로써 중국불교의 완성자라 추앙받는 영봉 우의지육의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따라서 철오선사가 저술한 〈염불가타〉 속에는 대승불교의 정밀한 교학체계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으며, 염불수행과 참선수행이 원용하게 잘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철오선사어록〉에 수록된 〈염불가타 교의백계〉와 〈염불가타 종승백계〉중에서 염불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을 담은 〈염불가타 교의백계〉와 이에 대한 두 사람의 주석을 중심으로 편집 번역한 것이다. 주석들은 4, 4구로 이루어진 각각한 염불송에 대해 그 교학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뜻을 풀이한 것으로, 염불법문이 어떻게 주요 불교 종파의 핵심 교리를 담아 내는지, 염불수행의 공덕과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이했다. 김주일 기자

# 참나를 찾기위한 핵심비법 100가지

## 〈禪〉의 지혜

윤홍식 지음 | 불광동래 펴냄 | 1만 8천원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현상(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흠 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며, 일체 법법이

오직 ‘의식’ 일뿐이네.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현상도 없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라!”

이 책은 한국큰스님들의 법문 가운데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인들의 수행과 생활에 핵심적 비법을 제시한 100개의 글을 뽑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해설했다.

이 책은 2006년도에 출간돼 독자들에게 사랑 받은 〈한국 큰스님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을 개정 증보했다.

출간 당시 서양이나 인도명상, 돈오돈수론이나 화두선에만 경도된 수행계에 신선

한 파문을 일으켰다. 저자는 이런 성과에 만족치 않고 지속적인 수행 경험, 최근 연구결과, 자신의 유튜브 강의 내용 등을 보강했다.

저자는 독자들이 불교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큰스님들의 수행노정을 본받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법문을 해설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한 법문을 통해, 큰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대승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언제나 자신의 내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참된 본성(곧 참나)을 깨닫고(견성), 본성에 내재된 속성(6바라밀)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보살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살의 길을 걸어, 참나를 깨우쳐 차원 높은 영성의 힘을 얻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진심으로 남을 돕고 함께 해탈을 이루며 홀로 갖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을 말한다.

따라서 보살의 길이란 불교도에게만 국한된 길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추구

해야 할 위대한 이상이기도 하다.

한국의 큰스님들은 보살의 길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의 어느 영성가들보다도 탁월한 방식으로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준다.

곧, 오감, 감정, 생각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 이를 내려놓고 오감,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보라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나, 무엇을 소유한 나, 어떠한 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나’는

## 〈한국 큰스님들...〉 개정증보

## 수행연구 경험 및 결과 등 보충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큰스님들의 손쉬운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모른다’ ‘오직 모르겠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하며,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문제해결 등에 ‘모른다’를 통해 몰입의 힘을 끌어내는 법도 안내한다.

큰스님들이 소개한 친절한 법문에 따라 자신의 참나를 각성하고 나면, 처음에는 또

렷하고 초월된 의식을 만나 황홀하지만 차츰 내 안에 광명하게 빛나는 참나의 존재 말고도 무지와 아집(고정관념)으로 꽂차 있는 이기적인 에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를 무시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참나의 속성을 활용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번뇌와 탐욕, 무지와 아집,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개체가 참나의 각성을 통해 스스로의 본성과 존재, 의식작용의 본질을 깨닫고,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참나의 힘으로 나와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위대한 보살의 길, 요역중생의 길을 걸어가는 노정을 여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저자는 오랜 수행 경험과 고전연구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어, 경전을 자구의 해석으로만 일관치 않고 실제로 경전대로 실천하는 수련과 실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경전의 본의, 부처님의 본의를 깨닫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일연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지어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남기신 뜻이 ‘보살의 길’과 다르지 않으며, 이 또한 깊은 인연의 소산임을 세삼 깨닫게 된다. 김주일 기자

# ‘바른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

## 붓다의 옛길

배아섯시 테라 지음 | 유미경 옮김 | 달물 펴냄 | 1만 8천원



1964년에 첫 출간된 이 책은, 반세기 전 지남 지공까지도 영어권 최고의 불교 명저로 꼽힌다. 1996년에 한국어판이 출간됐으나 곧 절판됐고,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출간되었다. 원전에 최대한 충실히 새로 번역했고, 주요 계승과 말씀에 빠알리어 원문을 병기해 붓다의 원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의 핵심내용은 불교의 중심개념인 사성제와 팔정도다. 이를 쉽지만 깊이 있게 해설한다. ‘바른 불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책으로, 불교의 출발점인 ‘괴로움’을 염세주의나 패배주의적인 철학이 아닌,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저자는 1914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어나 1998년에 임적인 스리랑카의 큰스님이다. 하버드대 국제종교연구센터서 연

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세에 출가해 스리랑카의 저명한 고승인 와지라나나 나야까 스님 밑에서 불법을 닦았다. 능숙한 영어로 동서양을 여행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했고, 여러 국제종교회의에 남방불교 대표자로 참여했다.

이미 많은 영어권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 “불교의 중심사상과 붓다의 가르침을 설명한 책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어, 불교를 공부하거나 배우는 사람에게 최고의 입문서다.”라고 호평했다. 또한 한 독자는 “불교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기 권한다. 불교에 관심 없는 사람도 교양서로 읽기에 손색없다.”고 전했다.

저자는 세심하게 고른 단어와, 논리적이고 통합적이며 신뢰할 만한 문장으로 붓다의 삶과 ‘옛길’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준다. 다른 책들이 저자의 의견이나 해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 책은 붓다의 말 그 자체에 집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불교적 인생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김주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샐  
단독입점

#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샐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 북 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 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샐 TEL 02)2004-8216